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례연구

- 전남지역 한마음 공동체를 중심으로 -

박준근 · 박홍섭*

I. 서론

II. 운동의 배경과 조직

III. 공동체 운영의

향상방안

I. 서론

오늘날 한국 농업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한국의 농산물 가격 수준이 국제 농산물 가격 수준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에 더 많은 농산물이 수입되어 왔고, 식량 곡물의 자급률은 1996년 현재 25.9%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처럼 불리한 농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의 감축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면 전업농의 육성을 장려하여 농업 생산의 기계화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농업 노동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발상된 정책이긴 하나 아직은 높은 토지 가격으로 인하여 경영 규모의 경제를 위한 농장 면적의 확대와 활발한 농지 이동이 단기간 내에 달성되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임은 물론이다.

비록 그것이 단기간 내에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대다수가 현재로서는 작은 규모의 농업과 비효율적인 농업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업농이나 대단위 농업 법인에게 토지를 전환시킬 경우 짧은 기간 동안에 이들의 전업이 어렵고 동시에 이주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업 노동에 대한 임금률은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말을 바꾸어 농업 수익성이 최근 몇십 년간 상대적으로 떨어져 왔고 젊은이들은 소위 말하는 3-D 직종에 속한다고 하는 농업을 피하고자 농촌을 떠나고 있다.

당연히 농업 생산은 저하하고 있고 농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농촌 노동력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와 유독

* 각각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와 응용식물학부 명예교수. 필자들은 이 연구를 위해서 면담에 협조해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진솔하게 언급해주신 장성군 남면 백운교회 남상도 목사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한 농화학 약품의 대량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어 왔다. 그리하여, 농업 생산성은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손상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하나로서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자주 제시되었다.¹⁾ 비슷한 논리로, 유기농업적 방법을 가지고 농민들의 건강을 지키며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공동체 운동이 광주(광역시)에 인접한 장성군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한마음 공동체」운동이라 불린다. 이 운동은 1990년 3월에 장성군 백운장로교회의 남상도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80명의 농업 경영자들이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협동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와 협력하였다. 그들은 이 「한마음 공동체」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①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한 삶과 환경보존.
- ② 외국 농산물에 대한 농업 경쟁력의 향상.
- ③ 협동적인 농업 공동체의 성취.

본 연구에서는 이 공동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1997년 3월 현장을 방문하고, 면담을 하였던 바, 그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운동의 배경과 조직

1. 배 경

백운장로교회는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에 위치해 있다. 그곳은 120만의 소비자를 가진 광주시로부터 약 20Km 떨어져 위치해 있다. 백운장로교회는 1960년에 설립되었고, 현재의 신도들은 100여명의 성인, 10여명의 청년, 30여명의 중등 학생, 30여명의 초등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의 주변에는 1,200여명의 농민들이 거주하는 400여 농가가 있다.

남상도 목사는 1984년 이래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해 왔다. 그가 이 운동의 시작과 경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던 이 교회에서 그의 성직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다. 채소농사에 풍년이 들면 가을철에 가격폭락이 발생하여 농민들은 울어야 했고, 정부의 권고대로 심어놓은 작물의 수매가 되지 않아 낭패를 보기도 했다. 자연히 농정의 불신은 깊어지고 농업소득은 불안정하였다. 이러한 사건들 이래로 그는 조금씩 농업과 농민들의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는 점차 가난한 농촌

1)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이란 원래 화학비료, 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살충제 등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업을 지칭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환경보전형 농업(environmentally sound agriculture), 저투입 지속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LISA), 자연농업(natural agriculture) 등의 농법을 포괄하는 농법을 지칭하고자 한다.

의 농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다.

영세한 소득 수준 이 외에도 그는 농민들이 관행적인 영농활동의 여파로 환경 피해와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의 건강문제까지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성직자로서 마침내 남목사는 백운교회 교인들과 함께 유기농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더 나은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적 농업을 실천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유기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유기농업에 관해서 축적된 지식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5명의 농민들과 그 운동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이 지역 농민의 대부분은 전국의 일반 농가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쌀 생산을 하고 있으면서,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소득작목의 생산을 몇 년 동안 계속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동체에 가입된 농민들의 대부분은 50세 이상이다. 이 교회는 1990년 3월 이래 자연보호와 농민의 소득과 복지라는 공동의 목표들을 장려하면서 농민들의 한마음 공동체 운동을 주도해 왔다. 특히, 인근의 대도시 소비자들의 식품소비성향도 양(量)중심에서 질(質)위주로 전환되어 양질의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안전한 식품의 소비로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됨을 주시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환경보전에 유익한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2. 조직 구성

1) 생산자 조직

한마음 공동체는 1990년 3월 1일 조합원수 85명으로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이 되었다. 이 공동체는 1994년에 소규모 공동퇴비제조장(도·시군비 42백만원, 자담 28백만원), 유기농 쌀농사시범사업(군비 30백만원, 자담 15백만원), 그리고, 1995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국·도비 175백만원, 자담 50백만원) 등을 펼쳐오고 있다.

한마음 공동체의 생산자 조직은 1997년 3월 현재 주변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10% 보다 적은 약 38호의 적극적인 참여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²⁾ 그리고 그들 중 2/3는 백운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 이러한 생산 방법을 한마음 공동체 이 외의 다른 농민들에게도 기술을 확산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조직 구성에 관해서는 1명의 의장 아래 1명의 비서, 9명의 이사, 그리고 2명의 감사가 있다.

한마음공동체 조직원들의 2/3는 50세 이상이고 단지 3명의 회원들만이 30세 이하이다.³⁾ 그들 모두는 유기농업의 경력이 10년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2) 인근 주민들의 본 공동체 참여율이 예상 외로 저조한 것은 이 공동체가 제시하는 각종 저공해·유기농법의 지침에 따르기가 쉽지 않고, 노동력 절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행적인 농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처음 시작할 때의 85명은 단순히 공동체로 출범을 같이 하였으나 공동체가 그 후 유기농산물만을 취급하기로 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결국 공동체 조직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다.

3) 이러한 농민 연령층은 충남 홍성군 풀무원의 생산자들의 55.6%가 30대, 22.2%가 40대로 40대 이하가 전체의 86.1%나 되고 50대 이상은 겨우 13.9%에 불과한 실정에 비하면, 한마음 공동체는 생산자들의 구성이 매우 연로한 상황인 셈이다(Kim, 1996).

언급하자면, 단지 10명의 농민만이 5년 이상 유기농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그들의 대다수가 이 유기농업 생산 분야에 새롭게 참여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 이 공동체 운동이 비록 교회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놀랍게도 38명의 공동체 회원 중에서 25명만이 기독교인이다.<표 1> 특정 종교를 떠나서 지역주민들간의 화합된 공동체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표 1〉 연령, 경험, 종교에 의한 농가 수

연령		유기농업 경력		종교	
30세 미만	3	1~5년	28	기독교인	25
30~40	5	6~10년	10	비기독교인	5
40~50	5	-	-	무종교	8
50세 이상	25	-	-	-	-

자료 : 1997년 3월 현장방문 조사자료.

이 한마음공동체 회원들이 유기농법 또는 저투입 지속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LISA)으로 생산한 주요 농산물은 쌀, 토마토, 딸기, 오이, 엽채소류, 당근, 무, 단감 등이 있다. 농민들은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유독한 살충제 대신에 대개 발효한 퇴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을 기존의 일반농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 보다 20~30%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쌀의 생산성은 기존의 일반 영농 방법에 의해 생산된 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년 후에는 기존의 일반농법 쌀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4~5년 후에는 더 높게 되는 경우도 있다.<표 2>

일반적으로 채소류의 산출고는, 그러나, 일반농법에 의한 산출고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유기농법 실시 4~5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결국, 채소류나 기타 작물의 생산성은 기존의 일반농법에 의한 생산성보다 높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동체의 농민들은 유기농업을 위한 퇴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공동체 소유의 퇴비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물량의 부족으로 일부 농민들은 시장으로부터 퇴비를 구입하여서 생산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4) 풀무원의 경우에도 상치나 딸기는 관행농법의 경우보다 각각 7.1%와 14.5% 정도 높았으나 고추나 수박, 포도의 경우는 반대로 각각 24.7%, 17.9%, 19.5%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한마음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작목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관행적 농법에 의한 생산성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Kim, 1996).

〈표 2〉 한마음 공동체의 일반농법 대비 유기농산물 생산성 수준

품 목	생산성	1년 이내	1년 후	2년 후	3년 후	4-5년 후
벼	낮다	○				
	같다			○		
	높다					○
채소류	낮다	○				
	같다			○		
기타	-	작물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낮음.				

이 공동체 회원 농민들은 쌀을 생산하는데 10a당 3톤의 퇴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채소를 생산하는데는 약 15톤의 퇴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 퇴비는 톤당 5만원의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단위 면적당 고소득을 창출하는 신선채소류의 생산에 상대적으로 많은 퇴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퇴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주로 해충이나 질병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공해 농약 또는 무농약을 통한 생산 문제의 해결이 절실한 입장이다.

이 공동체에서는 쌀 생산 방법의 하나로 논에 식용 달팽이를 키우고 있다. 식용 달팽이가 논에 잡초를 먹여 치우기 때문에 화학적 농약의 잔류량이 없는 쌀이 재배된다. 그러나 식용 달팽이를 통해서 잡초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잡초는 해결이 가능하나 벼에 병해가 발병하는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할 수 없어서 산출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식용 달팽이의 이용을 통한 쌀 생산에서 비롯한 소득은 대개 기존의 일반농법에 의한 쌀의 소득보다 높은 실정이다. 왜냐하면, 그 쌀은 농약의 잔류량이 없어서 일반농법에 의한 쌀가격보다 10~20% 정도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 이외의 다른 농민들에게도 그 식용 달팽이를 이용한 쌀의 생산 기술을 제공하는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 소비자 조직과 유통현황

유기 농산물이 일단 생산되면 한마음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협동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의 유기 농산물을 기존의 일반 농법 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농산물은 농산물 검사소에 의해 검사를 받아서 유기 농산물 인증과, 무농약 농산물 인증, 그리고 저투입 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공인된 정부 기관을 통해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생산하는 유기 농산물은 광주시 29개의 아파트 단지의 2,300여 가구에 직접 거래를 통하여 판매된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광주시의 5곳에 있는 직판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동체 생산의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다. 이 직판점은 회원들이 유기 농산물을

구매하는 곳이다. 이 공동체의 총농산물의 약 85%는 이 직판점과 아파트 단지의 직접거래를 통하여 소진되고, 약 10%는 그 유기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성군 백운농장을 직접 자가용으로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그리고 약 5%는 광주시에 분산된 개별적 가구들에게 배달되기도 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출하되기도 한다.<표 3>

<표 3> 한마음 공동체의 농산물 거래처와 물량비율

거래처	유통물량비율(%)	비고
- 아파트 단지 / 직판점	85	- 아파트(29곳)과 직판점(5곳)은 회원제로 운영
- 소비자 직접방문구매	10	- 소비자들이 자가용 이용
- 개별소비자 직배 / 서울로 출하	5	- 서울행 빈트럭 이용(서울지역 생협과 연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와 다소 비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인하여 공동체는 기존의 일반 농법에 의한 농산물 가격보다 20~30% 높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 지난 1995년 쌀의 유통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 4>와 같이 대부분의 쌀은 퇴비만을 사용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 때의 유통마진은 15%로 나타났고, 그밖에 저농약 또는 저공해 쌀의 경우는 11~15% 내외로 밝혀졌다. 일반미 생산자 가격은 1994년 107,307원/80kg였다. 따라서, 이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쌀의 농가판매가격은 일반 관행적인 전국 평균가격보다 적어도 2.5%~58.4%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는 품질차별화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본 한마음 공동체의 견해에 의하면 가격에 관한 한 쌀의 경우 40~50%, 채소류의 경우는 20~30% 정도 일반 관행적인 농산물보다 높아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표 4> 한마음 공동체 쌀 종류별 판매가격

쌀	재배면적 (ha)	재배방법	판매가격(천원/80kg)		(B-A)/B (마진율, %)
			농가단계(A)	소비자단계(B)	
무공해 쌀	11	퇴비만 사용	170	200	15.0
저공해 쌀	3	퇴비+금비소량 (무농약)	150	168	10.7
저농약 쌀	2	퇴비+금비 및 농약소량	110	130	15.4

자료 : 전남농업발전협의회, 1995. 9.

경영과 마케팅 비용에 대하여는 인건비가 전체 유통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상점 운영비가 약 20%, 포장과 운송비용이 약 20%를 차지한다. 그들은 공동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12명의 전업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생산 부문에 4명, 유통 부문에 4명, 나머지 4명은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그들의 1996년 한 해 총 연간 임금 비용은 약 9,600만원이다. 이것은 유통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마음 공동체의 총 농산물 판매액은 1996년 현재 약 13억원이다. 그리고 총유통비용은 약 1억 3천만원이고, 생산비와 기타 비용을 차감하면 순적자액은 3백만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마케팅 비용이 총판매액의 약 12~13% 정도를 차지함을 말한다. 이 공동체가 생산한 유기 농산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의 부족으로 작년 이익 대신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한마음 공동체의 경영내역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판매액 (억원)	0.5	1.0	2.0	5.0	8.0	13.0
생산/유통비 (억원)	정확한 자료 부재					1.3
순수익 (만원)	정확한 자료 부재					-300
고용인원 (명)	2	3	6	10	13	13

그것은 이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공동체의 경영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운영 방안이 아직은 정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그들이 한마음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수요-공급의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급 과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선한 농산물의 보존이 어려울 때가 많고,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물량의 공급을 하지 못함에서 오는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유기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배달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한마음 공동체는 광주시내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소비자 조직의 일원들을 교육하고 보충해 오고 있다. 이들 일원들 모두는 예외 없이 다음의 5단계를 통과하여야 한다.

- (1) 남목사에 의해 준비되고 교육되는 3-4시간의 소비자 교육.
- (2) 유기 농산물 생산 현장의 본인의 직접 방문.
- (3) 매년 10,000원의 연 회비를 지불하는 공식적인 회원.
- (4) 다섯 구좌 이상의 출발 기금 투자. 단, 한 구좌는 10,000원이다.
- (5) 주문된 유기 농산물을 운반할 예정된 배달 장소에서의 착실한 태도.

이와 같이, 이것은 소비자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한 장애물같이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공동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의 있는 믿음과 신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목사에 의하면 회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고 한다. 이것은 한마음 공동체의 정직한 생산활동과 거래관행 때문이라고 한다.

종합적으로 그 목적과 운동은 건전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작년에 순손실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더 효율적인 마케팅 체계가 간절히 요구된다. 교회 주변의 400여 농가 중에서 단지 38여 농가만이 적극적으로 공동체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이것은 유기농업 운동이 행해지고 있는 이 지역의 농업 경영자들의 단지 10% 혹은 그 미만임을 의미한다. 그들의

목적과 동기들은 매우 추천할 만 하다. 그러나 참여자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이익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이 운동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 공동체 운동이 6~7년 행해져 왔는데 최근에는 전문 경영자를 고용하여 유통·경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Ⅲ. 공동체 운영의 향상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공동체 운동이 보다 더 성공적이고 타지역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기술, 대규모 시장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며, 수입된 해외 농산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농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통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훌륭한 리더십과 아울러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농민들의 노력이 매우 바람직하다.

여러 다른 것들 중에서도 지난 해에 3백만원의 운영 적자를 경험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마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유기농업을 하면서 전혀 순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적자 상황이 계속해서 인식되지 못하고 곧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운동은 조만간에 붕괴될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 영역보다는 효율적인 판매 부분에 더 많은 정열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공동체의 농산물은 아직 상표화되지 못했고 유통 단계는 비효율적인 직거래 형태가 주를 이루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유통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대형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경로를 통해서 그들의 농산물 판매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가 보다 더 높은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리더십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조직이나 운동의 뒷면에는 항상 훌륭한 리더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서 볼 때, 한마음 공동체는 남목사와 함께 성장해 왔다. 그 자신은 농민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소비자에게는 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적절한 수입과 함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한 애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리더는 강한 추진력, 자신이 목표한 것에 대한 확신, 긍정적인 사고, 인내심, 적정한 모험주의, 넓은 마음, 경쟁 의식, 그리고 기타 등등의 몇 가지 특징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이건열 외, 1994). 남목사는 실질적인 유통과 재정 관리의 노하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질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그는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로부터 유통에 관한 더 많은 조언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농업 생산과 유통과 같은 어려운 공동체 운동은 확고한 리더십이 없

이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가 힘이 드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2. 혁신적인 생산

한마음 공동체에서는 쌀, 채소, 과일, 축산물, 가공품 등을 포함한 식품들을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신선농산물로서 단기간에 전량이 소화되지 못할 경우,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잉여 농산물이 이 공동체에서 가공되어진다. 그러나, 소규모의 가공 생산은 전국적으로 많은 경우에 빈번히 관찰되어진 과도한 투자 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유기 농산물의 가공을 소규모로 진행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의 투자와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공시설의 투자는 주의 깊게 계획되어야 한다.

과일은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일은 주로 LISA 방법에 의해 생산된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쌀은 눈에 식용 달팽이를 기름으로써 재배된다. 이러한 유기농업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 (1) 유기농법은 노동집약적 방법을 요구한다.
- (2) 유기농업의 생산비는 상대적으로 더 높다.
- (3) 처음 1~3년 동안의 저생산성은 불가피하다.
- (4)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에 정형화된 기술은 없다.
- (5) 병해충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방안이 부족하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농민이 필요한데 이것은 농민을 교육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현재 농민들의 교육은 남목사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위한 농민의 교육은 다방면의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시장의 확보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 없이는 유기농업의 미래는 매우 난망할 뿐이다. 현재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시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산물의 대부분은 직거래나 큰 아파트 단지를 통한 배달체계 등과 같은 직접 유통 경로에 의해 거래된다. 다시 말하면, 도매시장, 백화점 혹은 슈퍼마켓 등을 통한 유통은 한마음 공동체에서 현재로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한마음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큰 결점으로 여겨진다.⁵⁾ 현대의 소비자들은

5) 한마음 공동체가 대량 유통체계를 이용한 판매방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대량 유통업체들의 농간에 의해서 언젠가는 농민들이 속거나 크게 당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내지는 불신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마음 공동체 이 외의 유통업체들을 무조건 불신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상호신뢰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신앙의 공동체가 앞장서야 될 필요가 있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one-stop』 구매활동 즉, 한 상점을 들어서 다품목 소량의 재화를 구입하는 경향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는 유통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대단위 유통발전 방향일 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임은 물론이다.

유통 비용은 대부분 공동체에 의해서 부담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차량 한 대 분량의 주문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것은 단위 수송비가 특별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단순히 비효율적인 수송전략 때문에 특별히 유통비가 높아지면 유기농업의 미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고 유통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기 농산물을 대량 유통 경로를 통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 또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장 수요는 그들의 일괄 구매 행위를 활용함으로써 확장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저투입 농산물은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더욱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순수 유기 농산물과 차별화된 상표를 가진 LISA 농산물로 구별해서 유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경쟁력

더욱 자유로운 농산물의 거래는 세계 무역 기구(WTO)가 지향하는 바이고, 미래의 농업 분야에서 더 자유로운 무역 거래가 일어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외국 농산물은 계속하여 증가된 비율로 수입되었으며, 한국의 국내 농업은 이미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의 경우, 우리 나라 식량 자급률은 25.9%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다. 더군다나 쌀과 소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은 1997년 7월 1일부터 관세의 적정한 비율로 자유롭게 수입되기로 되어 있다.⁶⁾ 그러므로 우리 나라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은 더욱 더 절실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력의 우위는 낮은 가격과 고품질로부터 나오는데, 낮은 가격은 또 낮은 생산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낮은 생산비용은 대개 농업 생산 규모의 경제 때문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규모의 영세성은 한국 농업의 특징 중의 하나이고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상황을 더 좋게 개선시킬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실제적인 경쟁력은 주로 품질 차별화로부터 파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맹독성 농약의 잔류량이 없는 국내의 유기 농산물은 확실히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WTO체제 시대에 이러한 유기농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AO/WTO 규정에서 말하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제적 지침(CODEX)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정길생 외, 1996). 또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기농업 작물의 선정, 적절한 생산요소의 투입과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며, 유기농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처음 몇 해 동안

6) 쌀의 경우에는 최소시장접근(MMA) 조항 때문에 2004년까지 205,000톤을 수입하게 되어 있고, 쇠고기는 2001년에 41.2%의 수입관세율과 함께 완전수입개방화가 될 전망이다. 이 수입관세는 2004년이 되면 40.0%로 감소하게 되어있다.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조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농업육성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게다가, 유기 농산물을 위한 유통 체계는 직접 전달 체계에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통 체계로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유기 농산물의 수요가 기존의 일반농법에 의한 농산물 그리고 농약 잔류물질로 가득한 경향이 있는 수입 농산품에 대해 경쟁 우위가 있는 슈퍼마켓에서 확대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품 브랜드화에 의한 유기 농산물의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기 농산물의 이질화와 브랜드화는 매우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이건열, 박준근, 「농산물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 방안」, 『농업정책연구』, 제21권 1호, 한국 농업정책학회, 1994. 8.
- 전남농업발전협의회, 『전남농업발전계획(안)-환경농업분야』, 1995. 9.
- 정길생, 손상목, 이윤건, 「선진유럽 유기농업의 환경보전기능과 안전농산물 생산」, 『한국 유기농업학회지』, 제5권 1호, 한국유기농업학회, 1996. 12.
- 한마음 공동체 방문 수집자료.
- Kim, Ho, "A Case Study on Management Income and Productivity in Organic Farming",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5권 1호, 한국유기농업학회, 1996. 12.